발제신청서 및 발제문

|  |  |  |  |
| --- | --- | --- | --- |
| 단체 이름 | 단체 대표 성함 | 발제신청자 |  |
|  |  |  |  |
| 참가하게 된 동기 & 얻어갔으면 하는 것 | | | |
|  | | | |

|  |
| --- |
|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ex. ~~로 ~~를 하자!) |
| 새로운 청년정치, 청년다운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
| 지정 질문 (3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
| Q1. 청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요? 구체적 근거나 예시를 들어주세요. |
| 1)왜 나서야 하느나  1-1) 청년실업이 열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치적 요구라기에 부족하다)  1-2)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던져졌다. 세월호와 메르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면 왜 정치에 무관심 한 듯 보이는가? 기존의 방식, 제도, 세력이 이런 요구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국회의원이 청년의 역할을 대변했는가?‘청년정당’을 표방하는 지금의 정당들이 우리 삶의 처지를 더 나아지게 했는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공간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정당들 조차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 제도가 ㅓ없다. 그릇을 만들자, 제도를 바꾸자 라는 내용을 선명하게 걸어야 한다. |
| Q2. ‘청년 정치세력화’, 혹은 ‘청년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
|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1) 가치 : 단기적인 이윤 중심 => ‘미래’,‘청년’에 대해 논함으로써 장기적,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2) 현실과 구조 :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들의 붕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구조, 정치의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 즉, 새민련/새누리당을 받치고 있는 구조를 깨버려야 한다. |
| Q3. 2016년 총선, 17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행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 투표, 정책 발의, 선거운동, 입후보, 창당 등) |
| 1)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청년들의 잠재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80년대 국가주의,권위주의 -> 민주주의라면  2015년 대의민주주의 -> 1) 직접 나서자(정치에 진출. 정치권력을 미래세대에 배분하는 일. / cf. 기존의 ‘청년국회의원’은 이런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 시혜적인 혜택을 나누어주는 방법이었다. ) 2) 자치/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2)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1) 외국 성공사례 – 포데모스  - 써클 : 사회운동의 평등구조 + 그것을 묶어낼 총회  좌우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카스트 vs 민중으로 새로 선을 그었다.  2-2) meetup.com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에너지  2-3) barakobama.com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엮는 네트워크  2-4) 결론  자발성에 기초하고 다양한 오프라인을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것.  우리 세대의 강점은 ‘모바일’(IT기술을 통한 네트워킹)  기존의 청년단체들이 기득권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청년조직화를 쥐고 가려고 하지 말고 청년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과정에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어야 한다.  써클을 통해 청년 정치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cf. 새누리당 디지털 정당. 권위적인 정당, 과거지향적 정당에 소통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 뿐이다. 결코 자발성에 기초해서 될 수가 없다.  2-5) 실현  기술자와 전 청년당 창당자 등을 모아 meetup.com과 barakobama.com의 중간쯤에 있는 청년정치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베타테스트 중이고,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직접 참여의 힘을 모아서 8월 1일 청년전략스페이스에서 대규모 원탁회의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해서 결론을 내보면 좋겠다. |
|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자유 분량) |
|  |
| 발제에 필요한 실무준비가 있나요? (ex. PPT를 써야한다, 영상을 봐야한다) |
|  |